

# 볼링기대주 이영승·김동요 2관왕

〈전남조리과학고〉 〈고흥산업과학고〉



## 광주·전남 우수 연이틀 금메달 행진

광주 금 17·은 30·동 39 전남 금 25·은 29·동 23

한국 볼링 기대주인 이영승(전남조리과학고 3년)과 김동요(고흥산업과학고 1년)가 2관왕에 올랐다.

이영승은 21일 박휘향(고흥산업과학고 3년)·김동요(1년)와 호흡을 맞춘 볼링 여고부 3인조 경기에서 총점수 2287점으로 강원선발A(2261점)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19일 여자고등부 개인전 금메달, 20일 2인조 경기 동메달을 획득한 이영승은 대회 세 번째 메달과 함께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요는 전날 여고부 2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수영 박선관(전남 수영연맹)은 남자 일반부 배영 50m(25.64초)와 배영 100m(55.57초)에서, 육상 이원(전남체고 3년)은 남고부 400m(48.08초)와 200m(21.54초)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광주·전남 모두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가져왔다.

레슬링 양세진(광주체고 3년)은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69kg급 결승에서 송홍규(경북공고 2년)를 T폴승으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 19일 백삼현(광주체고 3년·그레코로만형 76kg급)에 이은 두 번째 레슬링 금메달이다.

양혜봉(함평골프고 1년)도 그레코로만형 54kg급 결승에서 김동수(광주체고 3년)에게 6-2 판정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고부 자유형 51kg급에서는 오정빈(여수정보과학고 1년)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우수에서도 연이틀 금메달 행진이 이어졌다. 조계용(광주시 체육회)이 남자일반부 장권전능에서, 윤웅진(순천시 우수협회)이 남자일반부 산타 56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근대 5종 경기에 출전한 강수연·김은별·정창순(송학건설)조가 일반부 4종 계주에서 금메달을, 윤일모와 이준협(이상 광주시청)

가 남자일반부 개인전(4종)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전남 남자고등부 경륜에서 10여년만에 광주에 금메달을 선사한 윤진규(광주체고 3년)는 남고부 스프린트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광주 서구청과 전남도청 펜싱팀이 결승 문턱에서 석패했지만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광주 서구청 강영미·김미정·최은숙·이바다 조는 여자일반부 에페 단체결승전에서 강원도청을 맞아 선전했으나 36-43으로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전남도청 이우리·모효정·김지현·한두미 조 역시 여자일반부 사브르 단체 결승전에서 전북 선발에게 36-45로 저 2위에 올랐다.

한편 대회 나흘째인 21일 현재(오후 6시) 광주선수단은 금메달 17·은 30·동 39개, 전남선수단은 금메달 25·은 29·동 23개를 획득했다.

/인천=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 서구청 펜싱팀 최은숙(왼쪽)이 21일 동인천여중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에페 단체 결승전에서 강원도청 선수를 공격하고 있다. 서구청이 강원도청에 36-43으로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학생 역도사 새롭게 쓴 완도수산고 이인우

### 용상종목 171kg 번쩍... 대회新 2관왕



11년만에 사재혁 선수 170kg 기록 깨

“처음으로 171kg을 들어올렸는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제94회 인천 전국체전에서 학생역도사를 새롭게 작성한 완도수산고 이인우(3년)는 “용상 연습 때는 168kg가 한계였는데 컨디션이 좋아 고등부 대회신기록을 작성했다”며 기뻐했다.

이인우는 69kg급 용상종목에서 171kg을 들어 올리며 지난 2002년 83회 전국체전 당시 사재혁(강원)이 세웠던 종전기록(170kg)을 갈아치웠다. 용상과 종합(300kg)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 은메달 1개(인상 129kg)를 추가했다.

이인우를 발굴해 지도해온 전남도 역도연

맹 이영래 전무이사(완도중 역도부 코치)는 “용상 1차 시기에서 160kg, 2차 시기에서 161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확보한 후 3차 시기에서 171kg을 맘 편하게 도전해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초등 6년생이던 이인우의 잠재력을 눈여겨보고 소안도 부모를 3차례나 찾아가 설득했다.

이인우는 신체적 조건과 힘이 좋고 유연성과 순발력이 뛰어나 중 2~3년째 소년체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고 1 당시 전국체전 성적은 4.6위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은메달 3개를 획득했고, 고교졸업을 앞둔 올해 대회에서 마침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완도수산고가 마이스터고로 바뀌면서 역도부가 해체된데다 지난 6월에는 팔꿈치 부상까지 입는 등 힘든 여정을 거친 만큼 더욱 값진 메달이다.

이인우는 “인상에서 끌어올리는 동작의 자세교정이 필요하다. 다음달 열리는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달겠다. 내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무대에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천=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 인천체전 이모저모

### ‘배우복서’ 이시영 어깨 탈골

○“배우 복서” 이시영(31·인천시청)이 경기 중에 어깨가 빠졌지만 혼자서 이 부상을 해결했다.

21일 열린 여자 일반부 플라이급(51kg) 8강전에서 김하울(19·충주시청)에게 관공패(1-2)한 이시영은 이날 3라운드 경기 도중 오른 어깨를 맞아 잠시 주저앉았다. 이시영은 스스로 어깨를 맞추고 경기를 이어갔지만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최근 국제야마후어복싱협회(AIBA)는 라운드별로 우세한 경기를 치른 선수가 승리하도록 채점 방식을 변경했다.

### 마린보이 박태환 5관왕 순조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4·인천시청)이 전국체전 5관왕을 향한 역을 이어가고 있다. 박태환은 21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에서 1분46초42에 터치패드를 찍어 1위를 차지했다.

19일 자유형 400m, 20일 계영 400m에 이어 체전 3관왕에 등극한 박태환은 22일 계영 800m, 24일 혼계영 400m에 출전해 이번 체전에서 5관왕에 도전한다.

### 민현빈 ‘클라이밍’ 초대 챔프

○한국 남자 스포츠클라이밍의 간판 민현빈(아디다스·서울)이 세계랭킹 추락과 금

메달을 맞바꿨다. 민현빈은 지난 20일 남자 일반부 스포츠클라이밍 리드에서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이 종목은 올해 체전 정식종목으로 도입된 종목, 금메달을 따냈지만 체전 참가를 위해 중국에서 열린 6차 월드컵 출전을 포기하면서 올 시즌 세계랭킹은 4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 단거리 간판 여호수아 2관왕

○육상 남자 단거리 종목의 간판인 여호수아(26·인천시청)가 제대 3주 만에 전국체전 2관왕을 달성했다.

여호수아는 21일 인천 문학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일반부 200m 결승에서 21초 15로 우승했다. 2주 조성권(충남·21초 448초)보다 약 0.3초 빨랐다. /연합뉴스

## “태극마크 달고 아시안게임 달리고 싶어요”

장애인 사이클 이정태 선수의 ‘아름다운 도전’

### 체계적 지도·지원 없이 ‘나홀로 맹훈련’ 지난 대구 장애인대회서 2관왕 레이스 “페달 밟을 때면 걱정 끝, 행복 시작”

“태극마크를 달고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달리고 싶어요.” 한 장애인 사이클 선수의 자식을 뛰어넘어 ‘국가대표’라는 꿈을 향해 힘차게 은륜(銀輪)을 굴리고 있다.

지적장애 2급인 이정태(32·광주시 서구 농성동)는 최근 여주에서 열린 추계 전국 장애인 도로사이클 대회 겸 2차 국가대표 선발전 8km와 32km 종목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4일 폐막한 대구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사이클 남자 도로(IDD) 32km에서도 선두로 골인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 트랙 독주 500m(IDD)와 개인도로 독주 16km(IDD)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6회 제주 삼다물 전국 장애인 사이클대회 IDD 1부 22km 도로일주에서도 우승한 바 있다. 지난해 장애인 체전에서는 남자트랙 독주 5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광주 서석중시절 검도를 시작으로 태권도와 유도,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를 접한 이정태는 2010년 일반인 사이클 동호회에 가입한 후 사이클의 매력에 푹 빠졌다. 같은 해 대전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체전 남자 개인도로 27km 은메달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많은 대회에서 입상했다.

특히 한달전부터 사이클 선수출신인 이모부 김봉상(50) 코치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며 체전과 추계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사이클 페달을 밟을 때면 행복하고, 즐겁다”는 이정태. 그의 ‘재산목록 1호’는 MTB(산악자전거) 2대와 사이클 2대다. 이정태의 꿈은 ‘국가대표’다. 그러나 그동안 출로 운동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렵게도 지난 5월 춘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 열리는 주요 3개 대회에서 선전을 버리고 있다. 더욱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상위에 입상해도 세계기록에 근접하면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수 있기에 순위 못지않게 기록작성도 중요하다.

김봉상 코치는 “키가 160cm도 채 안 되는 단신이지만 하체 힘이 좋고, 근성이 있다”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을 강화



장애인 사이클 선수인 이정태(지적장애 2급)가 제주삼다물 전국 장애인 사이클대회(25~26일) 2연패를 위해 담양~백양사간 15번 국도에서 맹훈련을 하고 있다.

시켜 내년에 대회 포인트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의 운동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산하에 사이클 연맹이 결성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수들이 직업이 없기에 제대로 된 선수 육성과 발판을 위해서는 훈련비 지원과 메달 획득시 포상금 지급 등이 절실하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광주FC(대)용의 후원회 출범식이 지난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에서 열렸다. 후원회는 지역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 결성됐으며 2015년까지 지역 유소년 축구팀 창단을 지원하게 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